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주요 건설공사 일시 정지

연일 40℃ 연일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안군이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의 건설공사를 오는 8월 넷째주까지 일시 정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폭염 시 건설 현장에 권고하고 있는 휴식제를 적용해 건설근로자의 심의작업 자제 및 휴식을 하게 하는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부안군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제한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 준공하기가 어려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해 출포한 해안철책 탐방도로 개설공사 등 실외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의 건설공사를 무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넷째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건설노동자 등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주요 사업장 건설공사 일시 정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공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폭염 종합 대책 '강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정읍시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8월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로당과 공공기관 등 32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으로, 냉방기기 점검과 홍보물 비치, 정월 상태 등 일제점검도 마쳤다.

또 시내와 읍면 소재지 주요 도로변에는 살수차를 동원, 물을 뿌려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온도를 낮추고 있다. 시는 추가로 제8008부대와 협의해 2대의 살수 차량을 지원받아 도로변에 대한 물 뿌리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가지 공공장소인 버스 승강장과 대로변의 교통섬에 열음 또는 그늘막을 확대 설치한다. 또한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방문 시 사용할 폭염 대비 행동매뉴얼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재난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와 자율 방재단, 이통장 등에 행동요령 등을 문자로 알리고 있다. 문자를 받은 재난도우미들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시 매뉴얼 등을 전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현안사업에 군민들 참여와 의견 반영 강조·소통행정 적극

유기상 고창군수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요현안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누수 없이 꼼꼼하게 군정을 살피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이틀간 고창~내장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주요현안사업장 9개소를 방문해 사업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했다.

24일에는 고창~내장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현장과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과 민원사항들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공사관계자와 관련부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사업현장에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들이 도로이용의 편익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브리핑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련의 모든 과정에 주민과 지역의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최대한의 만족을 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고창읍성을 방문한 관광객 등산이 자연스럽게 고창전통시장으로 이어져 대표관광지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시포항을 방문해서는 고창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해상경계확정을 위한 현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동석한 어민들과 고창군 해상 자치권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했으며, 최근 건조가 완료된 어업지도선(15t급)에 승선하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심원면 두어리의 고창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준공 후 운영 시 두어리 마을 주민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두어리 주민

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현재 진행 중인 두어리마을 어촌 6차산업 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식품과 레스토랑의 메뉴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5일에는 고창과 장성을 터널로 연결하게 될 도계~석정 국지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도의 새로운 연결통로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창읍성 주변 생태 체험공간이자 쉼터가 될 자연마당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고창군 대표 랜드마크인 고창읍성의 문화자원과 자연마당의 생태자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현재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기를 주문했다.

유기상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방법을 함께 찾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

각종 자전거사고시 보험혜택 증점 홍보

부안군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추진되고 있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인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 장애와 진단·입원위로금, 별급·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한편 부안군은 읍면 게시판 홍보물 게시 및 이장회의시 홍보물 배부와 함께 부안군 홈페이지, 관내 병원 협조 요청 등 자전거보험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난 24일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한전, 전기안전마을 조성 협약 체결

전기설비 점검·올바른 사용법 등 전기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이하 전북지사)는 지난 24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임종민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재해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관련, 산간·농촌마을을 전기재해가 없는 안전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 산간·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마을을 선정,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전기안전마을 현판을 설치한다. 또 '육내 전기고장 신고는 전기안전보안관 콜센터'를 이용 토록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또 전북지사는 전기안전마을에 전기안전보안관을 지정하고 긴급출동 무료 서비스,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 및

올바른 사용법 등 전기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협약식에서 유진섭 시장은 "산간·농촌마을을 전기재해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육내의 전기설비 고장 시 전기안전공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민 지사장은 "전기 누전이나 합선, 차단기 고장 등 육내의 전기고장 신고는 한전이 아닌 전기안전공사에서 긴급 출동하여 노후 차단기 및 배선기구의 교체, 절연 보강 등 응급조치를 해드리고 있다"면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이주여성 고향나들이 확대 지원 등 건의사항 검토

유진섭 시장이 지난 24일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를 찾아 결혼이주여성 70여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다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건의사항 등도 수렴했다.

이날 방문은 현장행정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주 여성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외조부모 외가 친척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성장하는 일이 없도록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유시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베트남어와 캄보디아 교실 개설 ▲다문화가족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의 결혼이주여성 국가 연수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소방서, 전통사찰 현장지도 방문

정읍소방서는 지난 24일 관내 전통사찰인 내장사를 방문하여 도원 주지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김종수 서장은 고창소방서 재직 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계시던 도원스님과의 인연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앞으로 상호 업무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주지스님을 예방한 후 김 서장은 단청 채색중인 내장사와 주변 소방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에게 촛불이나 연 등 등 화기취급에 따른 주의사항, 전

통사찰 주변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소방시설 관리요령 및 사용법 등을 지도했다.

김 서장은 "화재 시 급격히 연소하는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깊이 인식해, 화기취급에 각별히 주의하고 평소 소방시설 점검과 사용법 숙지로 화재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